

Shinik Hahm and Symphony S.O.N.G

국가보훈부, SEBONG, DSK Display Solar Knowledge 와함께하는

VERDI REQUIEM

2026. 06. 16(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한수향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6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3억 원 이상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1억 원 이상

말러 Circle 5,000만 원 이상
티에스이
에프에스티
풍산
세봉

브람스 Circle 3,000만 원 이상
지에프에스

브루크너 Circle 2,000만 원 이상
면사랑

슈베르트 Circle 1,000만 원 이상
윤정웅
비쉬엘
세아제강
신승일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500만 원 이상
디에스케이
곽진오
송백규
최영애
이성재
장원기

쇼팽 Circle 300만 원 이상
문형주
안정근
이경혜

모차르트 Circle 100만 원 이상
코스모엠
김기태
계양수치과
이근혁
신갑순
한수향
전홍구

하이든 Circle
고윤영
김종혁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심남영
홍정표
황여진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리를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 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한다.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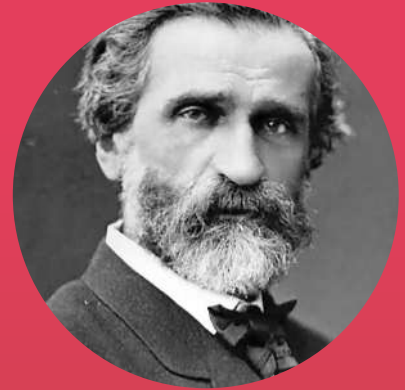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랑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Requiem"

베르디의 "레퀴엠"



Giuseppe Verdi (1813-1901)

Messa da Requiem, Op. 48

레퀴엠, 작품번호 48

I. Requiem & Kyrie

II. Dies irae

- i. Dies irae
- ii. Tuba mirum
- iii. Liber scriptus
- iv. Quid sum miser
- v. Rex tremendae
- vi. Recordare
- vii. Ingemisco
- viii. Confutatis
- ix. Lacrymosa

III. Offertorio

IV. Sanctus

V. Agnus Dei

VI. Lux aeterena

VII. Libera me

레퀴엠과 키리에

진노의 날

진노의 날

오묘한 나팔소리

기록된 책

불쌍한 이

두려우신 임금이지어

기억해주소서

저는 탄식하나이다

악인들

눈물의 날

봉헌송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 양

영원한 빛

저를 구원하소서

소프라노 오미선 /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김동원 /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부천시립합창단 / 인천시립합창단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악장 송지원

바이올린 박진형 강은실 오하은 김민지 김사무엘
김시온 박서현 박지우 박지윤 배소희
선유란 신서닉 안휘윤 윤채연 이지혜
장민주 정예린 정예은 조희상 최가영
홍현

비올라 서예슬 한지윤 안예림 임우진 김도현
김효경 송수민 장윤정

첼로 유완 김예은 구서연 권혜림 남예은
우아람 정다인 조아진

더블베이스 박준건 이석빈 이예진 이희호 정선재
천유림

플룻 김성찬 김보경 최선율

피콜로 김보경

오보에 김소정 김우영

클라리넷 고태원 조성용

바순 김윤지 고경호 민서영 정주민

호른 조종현 김효정 나예진 주혜준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황다은

트럼본 이윤호 김재원 오세리

튜바 김지은

팀파니 정주환

타악기 유요한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김시진 김재묵 유소정
이수민 진연수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거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한 열정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왕'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왕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 2026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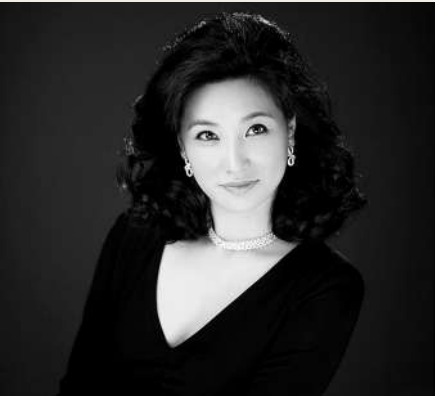
지휘자 함신익



오 미 선

소프라노

- 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페스카라 음악원 졸업 및 조교과정 수료
- 페스카라 고등음악원 오페라학과, 베냐미노 질리 아카데미, 비오티 아카데미 졸업,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수료
- 벨리니, 페루초 탈리아비니, 아트리, 조바니 탈렌티, 수비아코 국제콩쿨등 입상
-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여자 주역상
- 현)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



김 선 정

메조소프라노

- 독일 함부르크 음대 학사 및 석사
- Oscar-Ritter Stiftung 과 Brahms-Stiftung 장학생
- 독일과 유럽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
- 국내 국립오페라단, 시립 오페라단 등에서 오페라 '카르멘', '보체크', '신데렐라' 등의 주역
- 국내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등 여러 오케스트라, 시립합창단과 협연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및 전문 연주가 활동



김 동 원

테너

- 중앙대학교 성악과,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졸업
- 프란시스코 비냐스 국제콩쿠르 특별상, 알렉산더 기라르디 국제콩쿠르 1위, 트로기르 국제 테너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국제콩쿠르 석권
- 2008 유럽 오페라전문지 오펜벨트 주관 "올해의 가수"에 선정
- 2014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 2016 대한민국음악대상 '올해의 성악가'에 선정
- 독일 주요극장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과 한국과 일본 등 국내외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
- 현) 세종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



사 무 엘 윤

베이스바리톤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독일 쾰른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런던 코벤트 가든, 빈 국립오페라극장, 밀라노 스칼라 극장, 베를린 도이치 오퍼, 파리 바스티유 극장, 쾰른 오퍼, 미국 리릭 오페라 시카고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활동
-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 수상, 2018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이인선상 수상
- 현)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부천시립합창단은 1988년 창단되어 신선하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합창음악계를 선도하는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해석과 균형 잡힌 하모니를 선사하며 국내 정상급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부천시립합창단은 헨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멘델스존 <사도 바울>, 로시니 <작은 장엄미사> 등 시대를 초월한 정통 합창음악을 주요 레퍼토리로 선보이며 진정성 있는 해석과 높은 완성도의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또한 오페라 <박쥐>, <마술피리>, <라 보엠>은 물론 말러 <부활>, 바그너 <탄호이저> 콘체르탄테 연주, 베토벤 <합창> 등 대규모 합창이 요구되는 작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의 예르마코바, 미국의 윌리엄 데닝, 조셉 플루머펠트, 제리 맥코이, 독일의 마틴 베어만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의 협업과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초청연주 등 해외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부천시립합창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합창음악계를 선도하고 관객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그리고 합창음악의 철학인 '배려'를 사회에 전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시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 이후, 1995년 윤학원 전 예술 감독과 함께 재창단하며 세계합창연맹(IFCM)과 미국지휘자협회(ACDA) 컨벤션 등 세계 주요 합창 축제에 초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였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은 시민들에게 감동있고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제공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인천합창대축제> 등을 통하여 지역의 합창저변확대와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4년 1월, 윤의중 지휘자가 제8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며 더욱 세계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은 2025년 1월, 인도네시아 반둥 합창 심포지움에 초청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에 합창음악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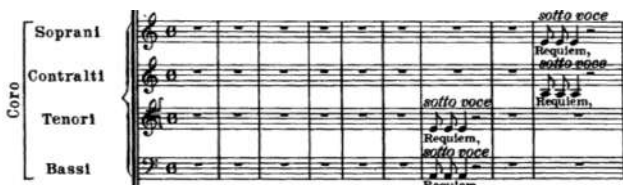
Messa da Requiem, Op. 48

베르디 레퀴엠, 작품번호 48



드라마틱한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가 남긴 유일한 대규모 종교 음악인 <레퀴엠>은 단순한 종교음악을 넘어서 오페라 극적 요소와 고전적 장엄을 결합한 걸작으로 인간의 죽음과 두려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장 강렬하고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곡은 베르디가 깊이 존경했던 이탈리아의 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서거 1주기를 기리기 위한 개인적 헌사로 출발했으며, 1874년 밀라노 산 마르코 성당에서 그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베르디는 가톨릭 미사 고유문을 가사로 사용하면서도, 특유의 극적인 화성술과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성악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종교 오페라를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울림을 창조해냈다. 음악적으로 베르디의 <레퀴엠>은 총 8개 주요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악장은 고유한 정서적 색채와 극적 장면을 형성한다. 마지막 'Libera me'에서는 인간 존재의 절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절정에 이르며, 작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오페라적 여정으로 완성한다. 결국 베르디의 <레퀴엠>은 미사곡과 오페라의 장르적 경계를 넘어서 종교적, 철학적, 인간적 질문을 음악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남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음악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연주되고 있다.

Giuseppe Verdi's only large-scale sacred work, the Requiem, is a masterpiece blending operatic drama with classical grandeur. It offers the most intense expression of human mortality, fear, and the yearning for salvation, moving far beyond simple religious music. The work began as a personal tribute for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eath of Alessandro Manzoni, a giant of Italian literature whom Verdi deeply admired, and was premiered in 1874 at Milan's San Marco Church under his own baton. While using the traditional Catholic Mass texts, Verdi maximized his dramatic harmonies, orchestration, and vocal expressiveness, creating an overwhelming resonance that evokes a massive sacred opera. Musically, the Requiem consists of eight major movements, each shaping its own distinct emotional color and dramatic scene. In the final 'Libera me', human despair and the longing for salvation reach their peak, completing the work as a monumental operatic journey. Ultimately, Verdi's Requiem transcends the boundaries between mass and opera, embodying deep religious, philosophical, and human questions, and it continues to be performed today with profound cultural significance.



I. Requiem & Kyrie

조용한 현악 피아니시모로 시작되며, 합창이 죽은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나직하게 기도한다. 어둡고 무거운 슬픔이 지배하는 도입부에 이어, 분위기가 반전되며 독창자 4인(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베이스)이 차례로 등장해 자비를 구하는 통곡의 기도를 시작한다. 화려하고 입체적인 성악 사중창과 합창이 어우러지며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I. Requiem & Kyrie

It begins with a silent string pianissimo, and the chorus meekly prays for eternal rest for the dead. Following the introduction dominated by dark and heavy sadness, the atmosphere is reversed, and four soloists (soprano, mezzo-soprano, tenor, and bass) appear in turn to begin wailing prayers for mercy. The colorful and three-dimensional vocal quartet and chorus are combined to heighten dramatic tension.

II. Dies irae

i. Dies irae

강렬한 팀파니의 연타와 대규모 합창의 외침으로 시작되며, 종말을 맞이한 인간의 공포와 신의 진노를 압도적인 음향으로 그려낸다. 질주하는 관현악과 격정적인 선율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며 극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전곡을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테마로서, 이후 이어지는 심판의 여정을 알리는 강렬한 서막을 연다.

ii. Tuba mirum

<Dies irae>의 연장선으로, 무대 뒤와 오케스트라에 배치된 트럼펫들이 사방에서 주고받으며 장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이 나팔소리에 이어 베이스 독창이 무덤에서 깨어나는 인간의 두려움을 묵직하게 노래한다.

iii. Liber scriptus

메조소프라노 독창이 중심을 이루며, 심판의 기준이 될 모든 죄가 기록된 책을 선언한다. 불길하고 엄숙한 선율 사이로 합창이 속삭이듯 “Dies irae”를 간헐적으로 외치며 공포를 더한다. 관현악은 묵직하고 중후한 음향을 뒷받침하며, 특히 저음 현악기의 어두운 색채가 두드러진다.

iv. Quid sum miser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의 삼중창으로 진행된다. 불안한 화성과 짧은 프레이즈가 특징인데, 심판대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느낄 한없는 무력감과 "과연 누가 나를 변호해 줄 것인가"라는 탄식을 애절한 바순의 오블리가토와 함께 노래한다.

v. *Rex tremendae*

‘두려우신 왕’을 향한 간청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단호하고 위압적인 리듬과 엄숙한 합창이 솔리스트들의 절박한 “저를 구원하소서(Salva me)”라는 외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관현악 전체가 압도적인 음향벽을 구축하며, 대규모 돔 형태의 편성이 곡의 중심을 잡는다.

i. Dies irae

The huge gunpowder, the thumping of timpani, and the chorus's scream are combined to perfectly visualize the fear of the end and the wrath of God.



ii. Tuba mirum

As an extension of "Dies irae", trumpets arranged behind the stage and in the orchestra send and receive majestic flares from all directions. Following this trumpeting of the final judgment, the bass solo sings heavily of the human fear of waking up from the grave.

iii. Liber scriptus

Centered around a mezzo-soprano solo, this section proclaims the book in which all sins to be judged are recorded. Amidst the ominous and solemn melody, the chorus intermittently whispers and cries out "Dies irae," heightening the terror. The orchestra supports with a heavy and profound sound, particularly highlighting the dark colors of the lower strings.

iiiiv. Quid sum miser

It is played in a trio of soprano, mezzo-soprano, and tenor. It is characterized by unstable harmony and short phrase, and sings with bassoon's obligato, who mourns the infinite sense of helplessness and "Who will defend me" in front of the bench.

v. Rex tremendae

The scene depicts a plea to the "fearful king," in which a firm and daunting rhythm and solemn chorus stand in stark contrast to the desperate cries of "Salva me" by soloists. The entire orchestra builds an overwhelming sound wall, and a large-scale vault or composition takes the center stage of the song.

vi. Recordare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의 여성 이중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심판의 날에 자신들을 잊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한다. 가벼운 현악기 반주와 목관악기의 섬세한 대화가 부드럽고 서정적인 대목이다.



vii. Ingemisco

테너 독창의 유명한 아리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탄식하는 인간의 내면을 그린다.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던 성경의 일화를 고백하며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서정적이고 극적인 호소가 돋보이며, 목관악기의 부드러운 반주와 현악기의 따뜻한 색채가 테너의 선율을 부드럽게 감싼다.



viii. Confutatis

악인들이 지옥의 격렬한 불길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와 분노를 베이스 독창과 남성 합창이 거칠게 표현한 뒤, 여성 합창은 천국으로의 인도를 청한다. 이내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인간의 모습을 고요하고 경건하게 가라앉히며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ix. Lacrymosa

<Dies irae> 대단원을 장식하는 슬픔의 정점이다. 메조소프라노의 비통한 탄식으로 시작되어 사중창과 합창,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통곡의 벽을 이루며 죄인이 용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장엄하게 마무리한다.

vi. Recordare

It is a female duet of soprano and mezzo-soprano. Jesus Christ reminds us of the purpose of salvation that came to this land, and begs us not to forget themselves and show mercy on Judgment Day. The delicate conversation between light string instruments and woodwind instruments is soft and lyrical.

vii. Ingemisco

It is a famous aria of the tenor solo, depicting the inner side of a human being who cries out for his sins. The lyrical and dramatic appeal of confessing the Bible's anecdote of showing mercy to sinners and singing hope for salvation stands out, and the soft accompaniment of the woodwind instrument and the warm color of the string instrument gently wrap around the tenor's melody.

viii. Confutatis

After the bass solo and the male chorus roughly express the fear and anger of the moment plunging into the fierce flames of hell, the female chorus asks for guidance to heaven. Soon, the figure of a human kneeling and repenting is calmly and reverently subdued, resulting in a dramatic twist.

ix. Lacrymosa

It is the peak of sorrow that marks the grand finale of "Dies irae". It begins with the mezzo-soprano's heartbreaking sigh, after which the quartet, chorus, and orchestra create a huge wall of wailing, majestically ending the sinner's tearful prayer for forgiveness.



III. Offertorio

지옥의 고통과 암흑으로부터 죽은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내용의 봉헌 미사곡이다. 심판의 두려움을 묘사했던 앞선 악장의 분위기를 거두고, 영혼들이 거룩한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구를 담고 있다. 합창단이 배제된 채 솔리스트 사중창의 유기적인 결합과 첼로의 유려한 선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한층 더 경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날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듯한 따뜻한 화성이 깊은 위로를 건네는 악장이다.

III. Offertorio

This offertory movement is an earnest prayer for the salvation of the souls of the faithful departed from the darkness and torments of hell. Departing from the terrifying depictions of judgment in the preceding movement, it conveys a profound plea for these souls to be guided into holy light and eternal life. With the choir absent, the music unfolds around the organic interplay of the solo quartet and the elegant, flowing melodies of the cello, creating an atmosphere of deep reverence and mystery. Its warm harmonies, reflecting on the past while praying for eternal rest and peace, offer a profound sense of consolation.

IV. Sanctus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오케스트라의 찬란한 팡파르와 함께 이중 합창(Double Chorus)이 펼쳐지며, 바로크적 대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앞선 곡들의 어둠과 공포를 단숨에 걷어내며 천사들의 춤을 연상시키는 화려하고 경쾌한 푸가(Fugue) 형식으로 축제적 환희를 선사한다.

IV. Sanctus

It is a song that praises the holy and almighty God, and a double chorus is played with the orchestra's brilliant fanfare,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Baroque counterpoint. It instantly removes the darkness and fear of the previous songs and provides a festive jubilation in the form of a colorful and cheerful fugue reminiscent of the dance of angels.

V. Agnus Dei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게 평화를 구하는 곡이다.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가 반주 없이 정결한 고전적 선율을 먼저 부르며, 여성과 남성이 분리된 합창이 이를 그대로 반복하며 따라오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지극히 평온하고 종교적인 정화의 순간을 보여준다.

V. Agnus Dei

It is a song that seeks peace from the Lamb of God who removes sins of the world. When the soprano and the mezzo-soprano sing a pure classical melody without accompaniment, a chorus that separates women and men repeats it, creating a unique structure. It shows a moment of extremely calm and religious purification.

Nº 6. Lux æterna

Allegro moderato $\text{♩} = 88$

Solo [Mezzo-Soprano] *pp* Lux æ - ter - na lu - ce - at e - is, Do - mi - ne, cum Sanctis

12 Violini I
divisi a quattro
a quattro *pp*

12 Violini II
divisi a quattro
a quattro *pp*

VI. Lux æterna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라는 가사를 담은 삼중창이다. 메조소프라노의 독창 위로 현악기의 예리한 떨림(트레몰로)이 영원한 빛의 광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테너와 베이스가 결합하며 빛과 어둠의 대비를 음악적으로 신비롭게 풀어낸다.

VI. Lux æterna

It is a trio that delivers the lyrics, "Shine eternal light on them." The sharp tremor (tremolo) of the string instrument visually depicts the eternal glow over the mezzo-soprano solo, while the tenor and bass combine to musically mystify the contrast between light and darkness.

Nº 7. Libera me

Moderato $\text{♩} = 72$ **a tempo**

2 Oboi *senza misura*

2 Clarinetti (in B) *senza misura*

4 Fagotti *senza misura*

Soprano Solo *Li - be - ra me, Do - mi - ne, de mor - te æ - ter - na, in di - e il - la tre - men - da, quan - do*

VII. Libera me

베르디 레퀴엠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오페라적인 극치이다. 소프라노 독창이 두려움에 떨며 읊조리는 자유로운 레치타티보로 시작된다. 중반부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Dies irae>의 총주가 터져 나오며 종말의 공포가 재현되고, 소프라노와 무반주 합창이 정적 속에 안식을 갈망하는 애절한 기도를 올린다. 마지막은 합창과 소프라노가 긴박하고 웅장한 푸가를 이루며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결국에는 심판주 앞에서 나직하게 숨을 죽이며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속삭이는 여운 속에 고요히 막을 내린다.

VII. Libera me

It is Verdi Requiem's final conclusion and the most operatic extreme. It begins with a free recitative of a soprano solo reciting in fear. In the middle part, the powerful song "Dies irae" explodes once again, reproducing the fear of the end, and a soprano and unaccompanied chorus perform a mournful prayer for rest in silence. The last is a urgent and grand fugue, driven like a storm, and eventually ends quietly in the lingering sound of slouching in front of the judge and earnestly whispering, "Save me."

I. Requiem and Kyrie

Requiem æternam dona eis, Domine, 영원한 안식을 저들에게 주소서, 주님,
et lux perpetua luceat eis. 그리하여 영원한 빛이 저들에게 빛나길.

Verse: **Te decet hymnus, Deus, in Sion,** 당신은 찬미받아 마땅하나이다, 시온의 하느님,
et tibi reddetur votum in Jerusalem. 당신께 드린 서원 예루살렘에서 지켜지리이다.

Exaudi orationem meam;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ad te omnis caro veniet. 당신께로 모든 육체가 나아가리이다.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II. Dies irae

i. Dies irae

Dies iræ, dies illa, 진노의 날, 바로 그 날,
solvat sæclum in favilla, 온 천지가 잿더미 되는 그날,
Teste David cum Sibylla. 다윗과 시빌라가 예언한 날.
Quantus tremor est futurus,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quando iudex est venturus, 심판자가 당도하실 그때,
cuncta stricte discussurus. 온갖 행실을 엄중히 저울질하리.

ii. Tuba mirum

Tuba mirum spargens sonum 경이로운 나팔소리가
Per sepulcra regionum 만방의 무덤 사이로 울려퍼지며
Coget omnes ante thronum. 모든 이들을 옥좌 앞으로 불러모은다.

iii. Liber scriptus

Liber scriptus proferetur 기록된 책을 대령하리니
In quo totum continetur, 곧 그 안에 모든 것이 씌어진
Unde mundus judicetur. 세상을 심판할 책이라.
Judex ergo cum sedebit 그러니 심판자가 착좌하시면
Quidquid latet apparebit,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니,
Nil inultum remanebit. 단죄하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iv. Quid sum miser

Quid sum miser tunc dicturus, 그 때가 되어 내가 무엇을 말하고,
Quem patronum togaturus, 누구의 비호를 청하리,
Cum vix justus sit securus? 의인들조차 안심하지 못할 터인데?

v. Rex tremendae

Rex tremendae majestatis, 엄위하신 왕이여,
Qui salvandos salvas gratis, 선택된 이를 자비로이 구원하시는 분,
Salve me, fons pietatis. 하여 그 날 제가 버림받지 않게 하소서.

vi. Recordare

Recordare, Jesu pie, 기억하소서, 자애로운 예수여,
Quod sum causa tuae viae, 무엇을 위하여 강탄하셨는지
Ne me perdas illa die. 하여 그 날 제가 버림받지 않게 하소서.
Quaerens me sedisti lassus, 저를 찾으러 당신이 기진하시고,
Redemisti crucem passus, 십자가로 저를 되찾으셨으니,
Tamuis labor non sit cassus. 그 고난을 헛되이 마소서.
Juste iudex ultionis 정의로운 복수의 재판관이여
Donum fac remissionis 저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소서
Ante diem rationis. 응보가 이루어질 그 날이 오기 전에.

viii. Confutatis

Confutatis maledictis 사악한 자들이 당황하고
Flammis acribus addictis, 고통의 불에 그들을 덮칠 때,
Voca me cum benedictis. 복자들 가운데서 저를 부르소서.
Oro supplex et acclinis, 낮게 꿇어 엎드리고,
Cor contritum quasi cinis, 마음은 뉘우쳐 잿더미와 같으니,
Gere curam mei finis. 마지막 순간에 저를 도우소서.

vii. Ingemisco

Ingemisco tamquam reus, 이 죄인은 신음하고,
Culpa rubet vultus meus, 얼굴은 부끄러워 붉어지니,
Supplici parce, Deus. 하느님, 이 탄원을 들으소서.
Qui Mariam absolvisti 당신은 마리아를 용서하시고
Et latronem exaudisti, 도적의 청을 들으셨으니,
Mihi quoque spem dedisti. 저에게도 희망이 있으리라.
Preces meae non sum dignae, 저의 기도는 하찮아오나
Sed tu bonus fac benigne, 착하신 당신은 호의를 베푸시어
Ne perenni cremet igne. 저로 하여금 고통을 면케 하소서.
Inter oves locum praesta, 양 떼 가운데 한 자리를 허락하사,
Et ab haedis me sequestra, 염소 떼로부터 꺼내주소서,
Statuens in parte dextra. 저를 당신 우편에 두소서.

III. Offertorio

Domine Iesu Christe, Rex gloriæ,

영광의 왕, 주님 예수 그리스도,

libera animas omnium fidelium defunctorum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de pœnis inferni et de profundo lacu

지옥의 형벌과 깊은 구렁으로부터 구원하소서.

libera eas de ore leonis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소서.

ne absorbeat eas tartarus,

지옥의 심연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ne cadant in obscurum

그들이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sed signifer sanctus Michael

기수인 거룩한 미카엘 천사가

repræsentet eas in lucem sanctam

그들을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Quam olim Abrahæ promisisti, et semini eius.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빛으로.

Hostias et preces tibi, Domine,

주님, 저희가 당신께 찬미의 제물과 기도를

laudis offerimus

봉헌하나이다.

tu suscipe pro animabus illis,

저희가 오늘 기억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quarum hodie memoriam facimus

이 제물을 기꺼이 받아 주소서.

fac eas, Domine, de morte transire ad vitam.

주님,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소서.

Quam olim Abrahæ promisisti, et semini eius.

일찍이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빛으로.

IV. Sanctus

Sanctus, Sanctus, Sanctus,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Dominus Deus Sabaoth. 온 누리의 주 하느님.

Pleni sunt cœli et terra gloria tua.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Hosanna in excelsis. 높은 데서 호산나.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Hosanna in excelsis. 높은 데서 호산나.

V. Agnus Dei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VI. Lux æterna

Lux æterna luceat eis, Domine: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Cum Sanctis tuis in æternum: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quia pius es. 당신은 자비로우심이니이다.

Requiem æternam dona eis, Domine: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et lux perpetua luceat eis. 또한 끝없는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Cum Sanctis tuis in æternum: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quia pius es. 당신은 자비로우심이니이다.

VII. Libera me

Libera me, Domine, de morte æterna, in die illa tremenda: 주여, 그 두려운 날에 저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소서.

Quando cœli movendi sunt et terra: 하늘과 땅이 뒤흔들릴 때에,

Dum veneris iudicare sæculum per ignem. 당신께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Tremens factus sum ego, et timeo, dum discussio venerit, atque ventura ira. 다가올 심판과 진노로 인해,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나이다.

Quando cœli movendi sunt et terra. 하늘과 땅이 뒤흔들릴 때에.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V

Pictures at an Exhibition

지휘 — 함신익

피아노 — 유성호

MODEST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

무소르그스키 — 민둥산의 하룻밤

MAURICE RAVEL

Piano Concerto in G Major, M. 83

라벨 —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 작품번호 83

피아노 — 유성호

MODEST MUSSORGSKY /

MAURICE RAVEL

Pictures at an Exhibition

무소르그스키/라벨 — 전람회의 그림

전람회의 그림

2026
09. 12. Sat
19:30

LOTTE
CONCERT HALL
롯데콘서트홀

티켓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C석 20,000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LOTTE
CONCERT HALL

YES24 NOL ticket

후원 하나은행

NOROO

PONGSAN

TSE

FST

SEBONG

이마트 후원사랑

화광교역(주)

SeAH

한국투자증권

로손코스모스여기
LGS COSMO CORPORATION

SYMPHONY
SONG
SHINIK BA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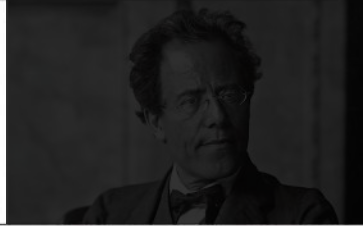
2026 합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말리의 “부활”

02. 07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USTAV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이윤정, 김선정, 국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NIKOLAI RIMSKY-KORSAKOV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FRÉ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1 피아노, 송은채

NIKOLAI RIMSKY-KORSAKOV
Scheherazade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03. 12 THU 19:30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05. 30 SAT 19:30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SERGEI PROKOFIEV
피아노, 김규연 Piano Concerto No. 2

DMITRI SHOSTAKOVICH
Symphony No. 5



베르디 “레퀴엠”

06. 16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IUSEPPE VERDI
Requiem

오미선, 김선정, 김동원, 사무엘 윤, 부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MODEST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

MAURICE RAVEL
Piano Concerto 피아노, 유성호

MODEST MUSSORGSKY / MAURICE RAVEL
Pictures at an Exhibition

무소르그스키와 라벨 “전람회의 그림”

09. 12 SAT 19:30



PYOTR TCHAIKOVSKY
Violin Concerto 바이올린, 양정운

PYOTR TCHAIKOVSKY
Symphony No. 4

객원자취, Darrell Ang



차이코프스키 스페셜

10. 24 SAT 19:30



LUDWIG VAN BEETHOVEN
Egmont Overture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2 피아노, 유영욱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브람스 페스티벌

11. 16 MON 19:30



송년음악회 “합창교향곡”

12. 29 TUE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Choral'

오미선, 김선정, 이명현, 양준모, 국립합창단



※ 특별할인 시즌패스(정기회원권) 문의 : 02-549-0046, E-mail : management@symphonysong.com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2026 시즌패스
2026 Season Pass

특별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8월 31일까지 구매시 10%	VIP석		480,000원	→	432,000원
	R석	4회	400,000원	→	360,000원
	S석		280,000원	→	252,000원
	A석		200,000원	→	180,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4회	200,000원	→	100,000원
	B석		120,000원	→	60,000원

티켓 구매 방법

전화 구매 02-549-0046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시 즌 패 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 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6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6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함신익 지휘자 **최신작** 꿈꾸는 지휘자 마에스트로

주문
02-549-0046

함 신 익
자 전 적
에 세 이

꿈 꾸는
지 휘 자
함 신 익

MAES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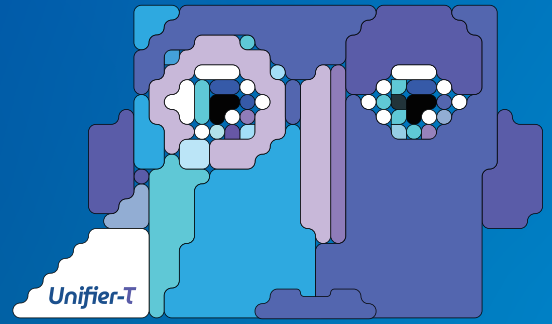
구성원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현실을
걱정하는 MZ에게

어느덧 세월을 보낸
진정한 어른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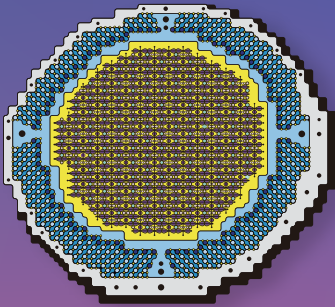
지나간 연주 인생에서 얻은
성찰과 지혜를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i3 unif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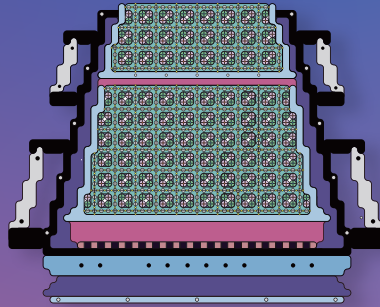


Optimized Advanced **InterconneXion**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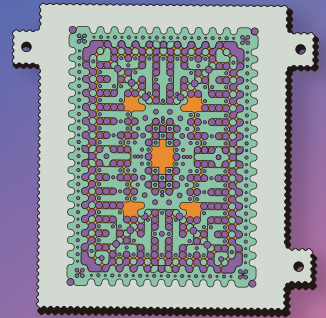
**반도체 테스트의 미래를 혁신하는
티에스이의 통합 솔루션, i3unify!**



Probe Card



Interface Board



Test Socket

TSE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PANAMA GEISHA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PANAMA
GEISHA



더 알아보기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콜드브루 커피원액
예가체프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다크 블렌드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디카페인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Elevate Your Business with Seamless System Integration.

차별화된 퍼포먼스 최적화된 시스템통합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 기술을 완성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가능성을 마련합니다.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